

펀드 수익률이 좋으면 투자자 수익률도 모두 좋았을까요?

Vol 06 | 2026년 4월 네번째 주

1

“전설의 펀드가 남긴 역설”

피터 린치(Peter Lynch) 마젤란 펀드



1977~1990년 연평균 약 29.2% 수익률 달성
VS
투자자 절반은
마이너스 수익률 기록

*자료: Fidelity Investment, 기간: 1977년 5월~1990년 5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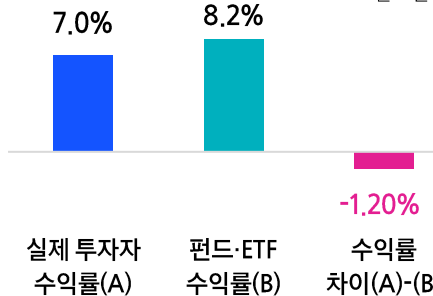
전설적인 투자자 ‘피터 린치’가 운용한 피델리티 마젤란펀드는 1977~1990년 연평균 약 29%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그러나 피델리티 자체 분석에 따르면, 같은 기간 평균 투자자의 수익률은 손실에 가까웠습니다. **펀드는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, 정작 투자자들은 돈을 잃은 것입니다.** 수익률이 좋을 때 물려들었고, 부진할 때 환매했기 때문입니다. **펀드 수익률과 내 실제 수익률은 일치하지 않습니다.**

2

“ETF 시대에도 반복되는 Behavior Gap**”

미국 펀드·ETF와 투자자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 비교

*2024년 12월 31일 기준



*Behavior Gap: 감정·시장 타이밍 등으로 개인 투자자 수익률이 펀드 수익률과 차이나는 현상

*자료: Morningstar, Mind the Gap 2025(2025.08.13)

이 패턴은 ETF 시대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. 모닝스타 ‘Mind the Gap’에 따르면, **최근 10년간 미국 펀드·ETF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은 펀드 총수익률 대비 연 1.2%p 낮았습니다.** 투자자들의 잦은 매매로 실제 상품의 수익률보다 저조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. 변동성이 큰 섹터·테마형 ETF 일수록 이 갭은 더 컸습니다. 거래 편의성이 오히려 행동 편향이 개입할 여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.

3

“수익률 갭을 줄이는 세 가지 습관”

1

자동 적립식 매수
매수 타이밍 고민 제거

2

절세계좌 활용 & 장기 투자
세금 혜택으로 수익 극대화 추구

3

매도 기준 미리 정하기
보유 기간과 매도 시점 선설정

결국 투자의 성공은 **투자자의 행동**에 달려 있습니다.

ETF는 단지 도구일 뿐
실제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**‘당신의 행동’**

우리가 투자한 ETF의 수익률과 실제 내 수익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**의사결정의 횟수를 줄이는 것**입니다. **첫째**, 자동 적립식으로 매수 타이밍 고민을 제거하세요. **둘째**, ISA·연금저축 처럼 절세계좌를 활용하여 장기 투자하세요. **셋째**,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보유 기간과 나만의 매도 기준을 미리 정해두세요. **ETF는 도구일 뿐,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의 행동입니다.**

추천
PICK!

테크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추구한다면
Kodex 미국나스닥100 ETF
(379810)

- ① 미국 대표 기술주 중심으로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대표지수 ETF
- ② 글로벌 빅테크, AI 혁신 기업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 성장 추구

* 기준일 2026년 4월 21일,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
* 합성총보수: 연 0.1003% (운용 0.0001%, AP 0.001%, 신탁 0.005%, 사무 0.0001%, 기타비용 0.0941%)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.0558% 발생, 위험등급: 2등급 (높은 위험)

* 합성총보수·비용 및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 및 ETF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SK하이닉스, 4월 23일 1분기 실적 발표 예정

- SK하이닉스, 메모리 강세에 1분기 영업이익 40조원 진입 전망: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SK하이닉스 1분기 평균 매출은 49조원, 영업이익은 34조원 수준. 실적 발표일 다가오자 유안타증권, KB증권 등은 동사 1분기 영업이익 4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
- 2026년 삼성전자·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 상승: 특히, KB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'26년 영업이익은 335조원, SK하이닉스는 251조원으로 합산 586조원 기대. 이는 전망치 기준으로 전세계 기업들 중 영업이익 2위(삼성전자), 4위(SK하이닉스)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
- 국내 메모리반도체 장기공급 계약 체결 확대: 삼성전자·SK하이닉스는 클라우드 및 GPU 업체들과 3~5년 장기공급계약 체결 확대. 이는 향후 메모리 공급 부족의 구조적 장기화 시사 및 수주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로의 진화 의미



* 자료 : KB증권 리서치센터(2026.04.17), 삼성자산운용 *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FOCUS ① Kodex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ETF(0177N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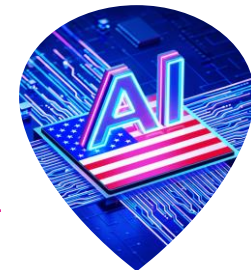
- 삼성전자 25%+SK하이닉스25%+만기 5년 국고채 50%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ETF
- 해당 ETF는 연금 계좌에서 100% 투자 가능하며, 특히 퇴직연금 계좌 내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투자 비중 확대 효과 기대

※ 총보수 : 연 0.07% (운용 0.059%, AP 0.001%, 신탁 0.005%, 사무 0.005%), 위험등급 4등급(보통위험)
 ※ 향후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※ 기준일 2026년 4월 21일

※ 합산총보수 · 비용 및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 및 ETF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*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중동발 이슈 이후 헤게모니는 다시 'AI'

- 미-이란 휴전 협상 진행되며 최악 시나리오 소화 : 미국-이란 간 휴전 협상이 진행되며 미국 주식시장은 전쟁 이후 하락폭 모두 회복하며 신고가 달성
- 중동발 조정 이후 헤게모니는 방산, 에너지보다 AI: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자립도 및 국방에 대한 중요성 두각 되었으나, 핵심 경쟁력은 'AI'로 전환. AI는 단순 기업의 신기술 영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생존 전략
- 국가 전략자산으로 자리잡은 AI '반도체': 특히 미-중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은 희토류 카드, 미국은 반도체 카드를 두고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 높은 만큼,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은 대체가 어려운 전략 자산. 지정학 리스크 강화는 오히려 AI 투자 확대를 견인하며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확대 기대



* 자료 :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(2026.04.01), 삼성자산운용 *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FOCUS ② Kodex 미국AI반도체TOP3플러스 ETF(0151S0)

- Nvidia, Broadcom, TSMC* 등 AI 반도체 산업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는 TOP3 기업에 약 60% 수준으로 투자
- 그 외 AI 반도체 밸류체인 주요 기업(AMD, Micron, Sandisk 등) 추가 선별하여 AI 패권 경쟁 변화에도 꾸준히 주목받는 AI 반도체 집중 투자

※ 총보수 : 연 0.490% (운용 0.459%, AP 0.001%, 신탁 0.020%, 사무 0.010%), 위험등급: 2등급 (높은 위험)
 ※ 향후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 * 구성 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※ 기준일 2026년 4월 21일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,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,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,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,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,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,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, 보수,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.
-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되며,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-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해당 자료는 특정종목을 추천하는 자료가 아닙니다.

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